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9〉 운거선사, 왕자출신 의천을 맞으면서

수도권 주변의 번듯한 사찰은 음으로 양으로 왕실 내지는 왕릉과 관계있는 원찰들이다. 그것도 못되면 왕족의 위배 내지는 하다못해 왕자의 태실 등이라도 봉안하고 있어야 제대로 사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 '선불교 암흑시대'의 실상이었다.

왕릉 앞의 사당인 정자각(正字閣)은 사찰건축에도 영향을 미쳐 통도사 대웅전은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되살린 T자형 법당으로 조성되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정치와 불교가 서로 배려하며 타협적 공생을 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왕족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승려의 영접 자세가 어떠했는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좌파? 사찰' 들은 선종의 정체성과 자존심의 유지방편으로 '하마비(下馬碑)' '누각밧을 통한 진입 계단' 등으로 그들의 비례(非禮)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고 경계하고자 애썼다.

송나라와 고려는 형제제국으로 문치



하여 놀란 것은 의천이 아니라 황실에서 특별파견된 수행비서다. 약간 짝어지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쾌함이 뻗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러십니까?"

운거선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 눈에 의천수좌는 왕자가 아니라 고려의 납자일 뿐이요. 승려가 총림에 입방을 하면 산중의 어른에게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법도입니다. 총림의 규범이 이와 같으니 내가 바꿀 수가 없소. 각각의 성씨를 가지고 출가하지만 이후에는 모두 석씨일 뿐입니다. 스스로 왕자라고 하려고 든다면 불법에 맞지 않소이다."

하지만 황제가 신신당부하면서 보낸 관리는 길길이 뛰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왕실을 업신여기고 관례를 무시하면서 여타 절과는 다르게 대접하는 것을 법도로 삼는다면 어찌 그것이 걸림없는 선지식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

고려왕자 의천, 송나라 수행비서와 함께 만행 왕실의 관례 깬 요원선사 기개에 '묵묵부답'

(文治)를 꽃피우면서 서로를 배려하였다. 그 때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義天)이 출가를 하게 된다. 물론 출가후에도 모두가 왕자신분으로 그를 대접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의천은 1085년 송나라로 유학하여 여러 선지식을 참방하였다. 그런데 그때도 누더기를 입은 납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만행을 떠나면서 송나라 황제에게 '천하의 총림을 두루 다니면서 법을 묻고 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글을 올렸다.

송나라 조정에서는 궁중의 행사와 의천을 담당하는 관리를 붙여서 의천을 수행(隨行)토록 했다. 승려의 운수행각인지 왕실의 행차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찰 역시 왕의 출행의전에 준하여 맞이하고 보냈다.

그런데 선사중의 선사, 납자중의 납자인 운거원(雲居)은 1032-1098년 선사가 머물고 있던, 강소성 진강부의 금산사에 그치지 않았다. 총림의 방정인 요원선사는 법상에 앉아서 의천납자의 삼배를 받았다. 당황

그러자 짧게 한마디로 대꾸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를 굽히면서까지 세속법을 따르다면 그것은 결국 정안(正眼)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무엇으로써 송나라 총림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것은 그 어느 기록에도 의천의 당시 태도와 속마음에 대한 반응을 언급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왕의 그것이니 '기개 있는 선지식'이 이까저시 제대로 한 명 만났구나' 하고 혼연히 그가 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속물이 빠진 제대로 된 승려라면 일이 열 개 있어도 당연히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다면 안 되는 도리인 것이다.

고추는 매워야 하고 소금은 짜야 한다. 왕실은 왕실다워야 하고 절집은 절집다워야 한다. 관리는 관리답게, 승려는 승려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제 맞다. 그 모든 맛을 한 혀에 접할 수 있는 이 일화는 드물게 만날 수 있는 명 요리 장면이기도 하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출가에 공덕이 따로 있겠는가

■ '유마경' 간경으로 배우는 '부처님 출가의 의미'



30여 재가불자들이 성상현 법사의 <유마경> 간경에 앞서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친아들 라훌라에게 묻는다. "출가하면, 어떤 공덕과 이익이 있는가?" 도리에 맞는 말로 출가의 공덕을 설명했다'는 라훌라의 대답이 끝나자, 유마 거사가 말한다. "출가 자체에는 공덕도 복덕도 없다. 진정한 출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발심해 올 바른 행을 부지런히 닦는 거다' 출가자 라훌라가 재가자 유마에게 혼쭐이 난다.

<유마경(維摩經)>. 주인공은 유마 거사. 부처님도 10대 제자들도 여기서는 라훌라가 재가자 유마에게 혼쭐이 난다. <유마경(維摩經)>. 주인공은 유마 거사. 부처님도 10대 제자들도 여기서는 라훌라가 재가자 유마에게 혼쭐이 난다. <유마경(維摩經)>. 주인공은 유마 거사. 부처님도 10대 제자들도 여기서는 라훌라가 재가자 유마에게 혼쭐이 난다.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7보(寶) 경전을 통째로 외워 강설할 정도로 간경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성법사의 강의는 단순한 경전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았다. 읽고 된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의 힘이 일컫혔다.

"<유마경>의 핵심은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의 대화에 있어요.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이 없어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보살은 병이 없어도 중생이 앓기 때문에 보살도 앓는다'는 경구지요. '몸이 아님' 즉 불이의 가르침이 <유마경>가



대한불교 보림회장 성상현 법사의 강의 모습.

분별 여인 열반의 경지가 진짜 출가 시간과 공간 초월해 모든 相 끊어야

르침의 고갱이입니다."

한역 <유마경> 원문을 한 자 한 자 뜻을 새겨가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연륜 만큼이나 다양한 수행을 해 온 이들은 재가불자의 경전 <유마경>의 깊은 뜻을 짚고, 재발심하는 낮빛이 역력했다.

13년째 성법사에게 간경수행을 지도 받고 있는 이광호(62·서울 사직동)씨는 <유마경>을 '무협지'로 비유했다.

"<유마경>은 다른 대승경전과 달리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유마 거사는 어려운 이론을 이야기하기도, 연습하지도 않아요. 조금은 잘못하지만 너무도 감명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니, 재가불자로서 통쾌하기까지 해요. 재가자로서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하니까요."

성법사는 마지막으로 재가자가 간경수행으로서 <유마경>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유마경>도 방편입니다. 그 안에서 실상(實相)을 찾아야 합니다. 실상을 찾지 않고 말과 글을 쫓으면 곤란합니다. 말이 없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가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불성 자리에는 본래 공덕이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출가자를 왜 따지냐는 것이 성법사의 지론이었다.

보림회의 이 같은 간경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5분(법화경), 금요일 오후 2시(유마경)에 열린다. (02)739-1044

글·사진=김철우 기자

아미타사 염불절 수행

서울 종로구 아미타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염불절 수행을 실시한다. 염불절은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염불하면서 절을 하는 것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수행법. 박종린 법사의 지도와 법문으로 진행된다. (02)745-3351

보리수선원 집중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선원장 붓다라카다)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초보수행, 18일부터 25일까지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초보수행은 초심자나 구참자 등을 위해 일상생활의 관찰방법, 올바른 수행법 등을 자세히 가르친다. (02)517-2841

명상상담원 주말수련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은)은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에니어그램 워크숍 및 주말명상수련회를 실시한다. 에니어그램 워크숍에서는 연극성 성격장애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주말명상 수련회에서는 호흡법 등이 진행된다. (02)2236-5306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관
전환주시는 본래는 연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무료 당선을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m
E-mail: heegyun@avata21.com

양청우 대중사 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귀명삼보(歸命三寶)하옵고
조계종 정화불사(淨化佛事)에 진력하셨으며 강릉 법왕사를 비롯해 조계사, 건봉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총회의원 등을 역임하시다가 지난 1971년 주지로 계시던 해남 대중사에서 원적(圓寂)에 드신 양청우(楊淸雨)대중사의 문집(門集)발간을 준비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우대중사 관련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개인적으로, 또는 문중의 은법사(恩法師)님이 청우대중사와 인연이 있으신 계방의 대덕스님 등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내 주신 분께는 사해와 아울러 자료의 반납을 희망하시면 반드시 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방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반값에 찾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서가모니불.

▶ **수집자료**: 1. 청우대중사와 관련 있는 사진
2. 청우대중사사의 추억 및 일화 소개의 글이나 말씀
3. 청우대중사의 범위
4. 청우대중사와 관련 있는 편지나 신문기사
5. 기타 청우대중사 관련 자료

▶ **자료수집기간**: 불기 2550년(서기2006년) 4월 30일까지

▶ **보내 주실 곳**: (619-9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43-4 신선사
전화 051)727-4964
팩스 051)727-5256

청우대중사문집 발간준비위원회 합장

불가미술(태극선공선)의 수련생 모집

무공이라함은 동작 의식호흡의 절묘한조화가 이루어지고 동중정의 경계를 행함이 있어야 진정한 무공수행이라 생각하는 수좌입니다. 6세에 출가해서 36년간 수행도중 부족하지만 수행체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수행도량이 되도록 3만6천평의 연화지에 수행전문관 법당 길이(64미터) 내공정진동굴(84미터) 대웅전 요사채 자연산 행수행터 등을 마련했습니다. 부디 진정한 각성을 여시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합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수행시간표 불가미술(태극선공선)의 연화심관법

새벽 3시	3시	예불
새벽 4시	좌선(연화기공: 권법수행)	
아침 7시	공양	
아침 9시	불교예절교육: 초발심자경문 강의	
10시	태극선공(외공내공수련)	
12시	점심공양	
휴식		
오후 2시	연화심관법(심수심법의 통찰수행의실체)	
오후 3시	도량정비: 울력(일체대중동참)	
오후 4시30분	차담(수행도중일어나는현상토론)	
오후 5시	저녁예불	
오후 6시	저녁공양	
오후 7시30분	연화기공 수행	
오후 9시	취침전검 취침 및 개인수행	

● **수련비**: 1일 2만원, 7일 10만원, 한달 40만원 숙식제공
(부전스님 2명, 중앙주보살 1명 모신다)
● **장소**: 경기도 평택시.진위면 동진 1리 산651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종. 경기도 총괄본찰 대각정사 주지 정관 합장

문의처 010-9508-6330 / 중무소 031)663-9066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1. 동충하초 자체체액을 선별·추출하였으므로 동충하초 본래의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2. 동충하초 성장주기 중 유용성분 함량이 가장 높은 시기의 개체만을 선별하여 추출하였습니다.
3. 살아있는 동충하초를 추출하여 함유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 살아있는 동충하초 100%추출액입니다.
5. 본 제품은 생물자원개발연구소가 품질을 보증합니다.

◆ 용량: 100ml × 60 포
◆ 특별판매가: 125,000원

● 연구개발자: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 검사: 시험번호 제 G02128 호
● 성분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3895 호
● 상표등록번호: 40-2001-0031242

※ 본 제품 판매의 수입금은 법당 조성 기금으로 사용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자선만대에 걸쳐 무한한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구입문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산 60번지 정토사 063)255-0733
법연스님 010-9282-0733

(주)천성건설

공사개요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공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탑, 마애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남궁당 공사
- ◆ 석굴, 법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 공사 일체
- ◆ 석굴, 자갈실, 보관실

공사원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법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법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역사
- 가평 석굴법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휴양공사 28개 조성

◆ **본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 빌딩 301호 (7계 및 자재창고)

◆ **공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1-423-2040
전무이재갑

(株)天星建設